國家와 警察을
사랑하는 警友會
(www.ex-police.or.kr)

警友新聞

발행처 : 大韓民國在鄕警友會
(우 : 100-789) 서울시 중구 신당동 171번지
전 화 : 2234-1881 FAX : 2231-7557
발행인 : 具 弘 壹 편집인 : 玄 誠 一
등록번호 : 문화다05675
1970년 12월 13일 창간

☎ 구독안내 : 02-2234-1881 National Police Newspaper 2005년 4월 6일 (수) 제1326호

『搜査權』"견제와 균형의 원리 작동 되어야"

노무현 대통령, 경찰대학 졸업식서 原則 再闡明

구홍일 경우회장, 대통령에게 수사권 조정 건의

경찰대학 제 21기 졸업식에 참석한 노무현 대통령 내외와 귀빈들.

경찰대학 제21기 졸업 및 임용식이 지난 3월 16일 경찰대학 운동장에서 노무현 대통령 내외와 오영교 행자부 장관, 허준영 경찰청장, 구홍일 경우회장, 내외귀빈, 가족 등 4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경찰 간부로 입문하는 졸업생들이 국가와 국민의 안녕과 질서를 지키는 초석임을 다짐하는 자리가 되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치사를 통해 『어려운 여건에서 힘들게 근무하고 있는 우리 경찰을 보면 늘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 들며, 직무특성상 주 40시간 근무제 혜택도 누리기 어렵다는 것도 잘 알고 있는 만큼 제도적인 뒷받침 없이 언제까지 사명감만 요구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숭고한 책무에 걸맞은 권한과 복지가 갖춰져야 하는 만큼 우리 경찰이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고 떳떳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특히, 노 대통령은 『수사권 문제는 지금 활발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이대로 가면 머지않아 매듭을 지을 수가 있을 것이며, 민주사회에서 권력기관은 국민을 위한 봉사기관이 되어야 하고, 그러자면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경찰이 책임감 있게 범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고, 경찰 스스로도 우수한 수사능력과 고품질의 수사서비스를 통해서 국민에게 평가받겠다는 자세로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대학은 1981년 창립 이래 2천408명의 졸업생을 배출해 왔으며, 현재 경무관(1명), 총경(79명), 경정(374명), 경감(777명), 경위(1천29명)등으로 복무하고 있다.

한편 구홍일 경우회장은 이날 졸업식 직후 가진 대통령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경찰의 수사권 조정 문제를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구 회장은 『세계 최고 수준의 우수한 경찰 간부들을 21년 동안 배출하여 경찰의 자질 문제가 해결 되었고, 이제는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해 檢警 간의 수사권 문제를 선진국형으로 조정할 때가 되었으므로 대통령께서 이번 기회에 꼭 매듭을 지어 주시기를 바란다』고 간곡하게 건의했다.

이날의 환담은 절반 이상의 시간을 수사권 문제로 대화하였고, 노무현 대통령도 대단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深刻한 학교폭력 경찰이 나섰다

스쿨 폴리스제 5월부터 시범실시 후 전국 확대

경찰청이 최근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종합 치안대책을 수립한 가운데 부산경찰청이 스쿨 폴리스(School Police)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 학교 폭력에 대한 경찰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부산경찰청이 이번에 도입한 스쿨 폴리스 제도는 퇴직경찰관·교사 등 퇴직공무원과 덕망이 있는 학부모 등을 「스쿨 폴리스(School Police)」로 선발, 소정의 직무교육을 실시한 후 초·중·고등학교 현장에 배치하여 교내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 등 각종 비행을 예방 및 선도·단속하는 임무를 부여하는 것인데, 이미 미국, 호주, 홍콩 등 많은 국가에서 전·현직 경찰관 등을 배치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부산경찰청은 학교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폭력범죄 50% 감소를 기본 목표로 하여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경우에는 전체 소년범죄 감소는 물론 사회범죄를 절감하는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전문인력의 재활용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활동능력이 있는 경찰·교사 등 퇴직공무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부가적인 효과까지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번 스쿨폴리스제도 도입과 관련해 부산경찰청은 警友회원 및 퇴직 교사들로 구성된 자원봉사자를 모집해 오는 5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3개월간 관내 10개교를 대상으로 2인 1조의 스쿨폴리스를 임명해, 제복을 착용한채 상주하면서 교내 순찰과 학생상담 지도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함으로서 학교내 폭력예방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선발되는 스쿨폴리스는 현직시절, 모범경찰관으로서 과거 징계 등 물의를 일으켰던 사람은 제외된다.

선정은 스쿨폴리스 선발위원회에서 하게 되는데, 위원회는 정보, 형사, 여성청소년, 경무 등 경찰기능별로 다양하게 구성하고 경찰인사위원회보다 많은 위원으로 해 객관성을 높이기로 했다.

경찰 · 교사 등 퇴직 공무원으로 선발

경찰 내부 수사권 조정에 대한 기대감 확산

- 자율과 분권은 노 대통령의 일관된 원칙 -

◆ 현직의 반응

경찰대 졸업식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수사권 조정 문제를 재차 거론한 것에 대해 경찰 내부는 크게 고무된 모습이다.

이날 졸업식에서 노 대통령이 『수사권 문제는 지금 활발한 대화가 이뤄지고 있고 이대로 가면 머지않아 매듭을 지을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언급해 검찰과 경찰간의 수사권 조정 문제가 조만간 해결될 것임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이날 노 대통령의 언급에 따라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수사권 조정 협상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가 경찰 내부에서 확산되고 있다.

지난해 9월 부터 수사권 조정협의체를 구성하여 검경간의 수사권 문제를 논의해 오고 있으나, 심각한 상호 이견으로 결렬 위기에 이르렀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노 대통령의 발언은 교착상태에 처한 협상에 물꼬를 틀 것으로 예상된다는게 경찰의 중론이다.

경찰측에서는 검사만을 수사 주체로 규정한 형사소송법 195조와 경찰 수사시 반드시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한 196조를 개정, 검·경을 동등한 수사 주체로 재정립할 것을 요구했지만 검찰이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결국 두 기관은 지난해 12월 시민단체와 언론계, 학계 전문가 등으로 수사권 조정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각계의 의견 수렴에 나섰지만 이것마저도 뚜렷한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다.

수사권 조정 자문위의 외부인사 12명이 검·경 두 기관에 우호적인 인사 6명씩으로 구성돼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형사소송법 개정 문제는 아직 본격적인 논의조차 하지 못한 상태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검찰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자율과 분권'은 노 대통령의 일관된 원칙이며, 이를 고수하는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로 미뤄 경찰의 수사권 조정도 실현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전망했고, 다른 경찰 관계자도 『8. 15해방 이후 6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도 일제시대의 형소법 체계인 "상명하복"관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검경관계를 현행 일본 등 선진국 예와 같이 "상호협력" 관계로 개혁해야 한다 』고 힘주어 말했다.

'수사권 조정' 核心爭點 놓고 難航

- 노 대통령의 英斷을 촉구하는 목소리 높아 -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논의가 핵심쟁점 분야를 놓고 한치의 양보도 없이 평행선 위를 달리고 있다. 대등한 수사 주체로 격상을 원하는 경찰과 수사지휘권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검찰이 워낙 팽팽하게 맞서 양측의 자율적인 조정이 더 이상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관측마저 나오고 있다.

검찰과 경찰이 지난해 9월 공동으로 발족시켰던 수사권 조정협의체가 석달이 지나도록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상황에서 지난 연말 민간 전문가들로 이뤄진 자문위원회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돌파구를 마련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했다. 하지만 '친검찰' 인사 6명과 '친경찰' 인사 6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마저 발족한 지 석달이 넘도록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이견만 노출해 검.경의 합의에 의한 수사권 조정은 사실상 불가능한 게 아니냐는 회의론이 커지고 있다.

지금까지 조정된 부분은 ▲긴급체포한 피의자 석방시 검사 사전지휘 폐지 ▲유치장 감찰 범위 축소 ▲경찰의 관할 외 수사시 검찰 보고의무 폐지 ▲압수물 처리시 검사지휘 폐지 등이다.

외견상 검찰이 상당부분 경찰에 양보한 것처럼 보이지만 본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은 전혀 수용하지 않은채 형식적인 문제로만 일관한다는게 경찰의 불만이다.

더욱이 검찰이 ▲치안정감에 대한 검찰의 지휘권 명문화 ▲법무부 산하 특별수사청 설치 ▲사법경찰에 대한 검찰의 징계청구권 신설 등 경찰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새로 내놓아 경찰에서는 검찰이 내심 수사권 조정을 거부하려는 의도적인 공세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명시한 형소법 195,196조를 고쳐 '검찰과 경찰이 수사의 동등한 주체'임을 법적으로 보장받는 것이 수사권 조정의 핵심인데도 검찰이 이를 외면한 채 경찰의 발목을 더 묶으려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검찰측은 경찰이 한꺼번에 너무나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불편한 심경을 드러내고 있다.

이 관계자는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존속시킨다는 가정 하에 경찰에 권한을 대폭 넘긴 것인데 수사지휘권 조항에 손을 대면 지금껏 협의된 내용도 전부 폐기될 수 밖에 없다"며 수사지휘권은 절대 양보할 수 없음을 내비쳤다.

검찰과 경찰의 입장이 워낙 팽팽해 합의안 도출이 사실상 물건너간 만큼 그간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공개적으로 약속해온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는 목소리가 경찰 주변에서 나오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지휘권 조항이 검찰과 경찰 어느쪽도 양보할 수 없는 사안이라면 결국 최고 통치권자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국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수사권의 재조정 차원에서 모종의 영단을 내려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前現職 首腦部 간담회 개최

구홍일 경우회장을 비롯한 경찰청 중앙회 임원단과 허준영 경찰청장을 비롯한 경찰청 수뇌부들이 지난 3월 7일 오후 7시 만찬을 겸한 간담회를 갖고 전현직 경우회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 교환을 가졌다.

무궁화빌딩 (종로 4가 로터리)

토탈 웨딩 브랜드 "에뚜알" 경찰 공제회관 12층에 오픈

전국 롯데마트/홈플러스(24개 점포)에 입점해 있는 에뚜알이 경찰 공제회관 12층에 토탈 웨딩 브랜드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전국에 계신 모든 경찰과 경우회 가족 여러분의 혼수 준비를 책임지겠습니다.

예물, 한복, 침구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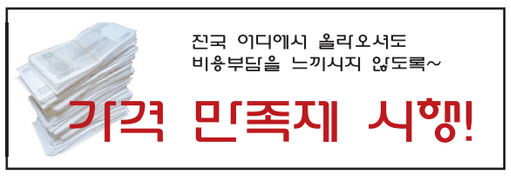
한복/침구 코너

예물 코너

한복/침구 코너

에뚜알만의 경쟁력!
다양한 디자인!
백화점 동급 제품 구비!
파격적인 도매가격!
경찰/경우회/경찰공제회원 여러분은 특별 우대할인

서울시 종로구 인의동 48-26 무궁화 빌딩(경찰 공제회관)12층



약 도

찾아오시는 길
경찰공제회관(무궁화빌딩)
12층 스카이라운지
연락처
02)735-5269/765-5269
02)2272-5261/764-5261
017-327-5363(이 진인/서울 종암서 은퇴)